

이성운, 박은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 서울고등검찰청은 한변이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4명의 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에 대하여 재기 수사명령을 결정하였다.
2. 한변은 2020. 12. 14. 박은정 당시 법무부 검찰담당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이성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옥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김앤장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변필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3. 당시 한변은 고발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한변은 불복하여 2021. 7. 29.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4. 어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다. 한변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검찰이 지금까지도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흔들림 없이 사법정상화, 정상국가로의 길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2022. 6. 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